

시편 8편 1-9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온 땅 2 영화와 존귀로

M: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자연의 신비함을 볼 때 자신의 작음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군생활 하던 때에 야간 밤바다를 순찰갔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시골이라 아무런 빛도 없는 데 바다와 하늘은 겹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순간 우주에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고 이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하고 말입니다. 그순간 사라져도 그 어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것 같이 작은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편기자가 어떤 자연의 모습을 보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땅에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대적에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대적들을 잠잠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심을 작은 것을 통해 보이십니다. 작은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 큰 자를, 겸손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유치원생이 엄마의 도움으로 그림숙제를 대단하게 해갔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유치원생의 실력이 아니라 엄마의 그림실력을 칭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사람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다고 했고 야보고는 안개같다고 했습니다. 약하고 보잘 것 없으며 유한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관심을 가지십니다. 광활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 없이, 오히려 지구에서 인간만 없어진다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할 정도로 자연만물에 해를 끼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인류의 첫 조상 때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온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깨닫지 못하겠지만, 겸손한 자는 이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그리고 그 모든 간격을 메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말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1절

그 행동은 안됩니다?

1 안식일 논쟁 2 안식일의 본질

M: 가르침을 따를 때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신14:21)’는 계명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 가축이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그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못하게 하여 치즈버거를 율법에 의하여 불법이 되는 음식으로 여기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식의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모든 일을 쉬어야 했기에 누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드러나는 편이었습니다. 누가 생업을 중단하고 회당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예배에 소홀하고 다른 일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누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밀을 자르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곡식을 허락없이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것이 주된 정죄와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조금 잘라 먹은 것을 추수라고하니 치즈버거를 못먹는 것 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일화를 예시로 드시며 반박하셨습니다. 요즘말로 한다면 성찬식 후에 남은 빵을 배고픈 사람을 위해 내어준 것입니다. 성소의 빵이라도 배고픈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데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무슨 율법을 어긴 행동이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그 의도와 가르침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행동 수칙으로만 여긴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으로 함께 이어가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갖가지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 그걸 안해서 잘 지켰고,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안식일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그 본질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후 공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할지 논의했다고 기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건을 가장하여 본질을 파괴하는 종교 행위는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인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배 출석, 새벽기도 참석, 헌금액수가 인정과 과시의 도구가 되어, 누구는 잘하더라, 누구는 못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교회만큼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잘난 척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기억하고 참된 의미를 되살려 바른 순종과 신앙생활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1 율법교사의 질문 2 이웃의 범위

M: 구원의 믿음은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이웃사랑을 만들어 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교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셨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6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한다면 받아들이기 수월하지만 이웃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랑의 실천과 떼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교사는 다른 반박은 하지 않고 이웃의 범위에 대해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은 커녕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이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미워할 대상이 따로 있고 이웃으로 인정하는 대상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이웃의 범위를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 사마리아인이 이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하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확장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이웃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 안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을 이웃으로 대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넓혀야 합니다. 비기독교인, 타종교인, 외국인, 심지어 원수까지 이웃의 범위로 포함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얼마전 가지고 있던 시계를 당근에 내어놓았는데 터무니 없는 네고를 하길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어눌해 물어보니 외국인이라구요. 수요순장 때마다 기도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매주 안산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혈값에 넘겼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고, 되돌려줄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보답을 하는 차원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베푸는 선행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0절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1 삭개오의 행동 2 만남과 변화

M: 간절히 바라면 만나주시고, 만나면 변화됩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두 단어로 그가 유대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의 장으로서 로마에게 상납할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위치였으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면치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동족의 시선은 따갑지만 그는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가 한 행동은 반전입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자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옵니다. 성인 남자가 막 뛰고 올라가고 급하게 내려오는 일이 어디 자주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상태와 상황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여전히 남아계십니까? 소심적에 잠깐 뜨거웠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며 지금의 냉랭함을 '그러려니' 하며 타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린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갖듯이 예수님 또한 주위의 시선과 평판을 신경쓰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변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인과 교제하여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교제한 죄인이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살고자 하는 삭개오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율법에서 명령한 것 이상으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는 것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절반은 다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였던 삭개오에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어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엇이 최고였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로 여겼던 것들에 매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변화가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고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구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